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41 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23 년 7 월 22 일(토) 오후 4 시 30 분 (서부 시간)

장소 :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사회: 총회장 추성희, 기록: 사무총장 황정숙

1. 정기총회 성원 파악사무총장

황정숙 사무총장이 참가자 88명으로 정기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알린다.

2. 개회선언..... 사회자

추성희 총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41 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국민의례 및 애국가 1 절 제창.....사회자

4. 회순 채택..... 사회자

회순 채택은 7 월 20 일에 미리 발송한 정기총회 관련 이메일의 첨부파일 1 에 있는 대로 1 번에서 14 번까지 항목으로 회순을 진행하기 원하는지를 물었고 송지은 회원의 동의와 김선미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 동의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표해달라는 사회자 발언 뒤에 회원 모두가 “네”로 동의 하였기에 회순이 채택된다.

5. 제 40 회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통과사회자

사회자가 제40회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은 강의록에 나온 것을 읽는 것으로 하자는 요청에 원혜경 회원 동의와 이은애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 이에 회원 모두가 “예”로 동의 하였기에 회의록 낭독은 강의록에 나온 것을 읽는 것으로 통과된다.

6.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2-23년 사업 보고사회자

회보에 나온 것을 읽는 것으로 대처하자는 사회자의 요청에 이은애 회원의 동의와 박은혜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 이에 회원 모두가 “예”로 동의하므로 통과 됨. 사회자가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 하는 것이 여러 선생님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한 후 몇 가지 사업에 관해 설명이 있었다.

- 학점 인증제: Seal of Biliteracy(이하 이중언어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학교 재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중언어 인증제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런 이중언어 인증제의 홍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국학교를 재학할 동기와 이유를 제공하게 되며 민감하게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정체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많은 한국학교 재학생들이 이중언어 인증제를 취득하는 자료가 쌓이면 역으로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어 수업으로 공립학교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어떠한 주에서는 이미 이중언어 인증제를 취득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교도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 취득 권장은 모든 것과 연계되어 있기에 장기간 계획을 갖고 한국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 **NAKS Korean Test(이하 NKT):**

이중언어 인증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시험이다. 매년 한국학교를 통해 **NKT**를 치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인증제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행 평가를 준비케 된다. 현재 가격 면에서 가장 좋은 수행평가는 **AVANT**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AVANT** 대표와 **Global Seal of Biliteracy** 담당자가 분반 강의에 와서 질의응답을 해 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TOPIK**이 50개 주 이중언어인증제 통과 시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NKT**는 **AVANT** 시험 체제를 따라 개발될 예정이다

- **온라인 학습 도구 개발**

어린 학습자들이 언어 습득 및 문해력 향상에 있어 좋은 책을 많이 접하는 것이 한글을 깨우치고 어휘를 확장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미한국어교육 환경적 특성상, 한국에서 출발되는 많은 양질의 창작 동화책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한글학교에서는 사용하는 교재의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적인 한계가 부딪히며, 부모가 한글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가정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문해력 향상시키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 위주의 커리큘럼과 학습도구를 개발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청소년 리더십 개발 위원회**

청소년 리더십 개발 위원회: 본인이 자라나고 있는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된 최초의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깊이 있게 고찰함으로써 확고한 재미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12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있었기 가능했다는 것을 학습시키고 한인 이민사에 대해 학습한다. 나아가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한 배움을 통해 재미 한인으로서 통일의 필요성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열린 생각을 갖도록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강한 미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리더십과 한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겸비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7. **2021 – 2022 회계 연도 감사 보고.....**감사 김미경

감사가 2021-2022년 회계연도 감사 및 마이클양 기금에 대한 보고를 함. **Uncleared check** 총액이

\$139,990 인데 왜 그렇지냐는 회원의 질문에 대해 학술대회가 끝난 후 체크가 빨리 입금되지 않은 관계로 이

금액이 보였으나 결산 보고에서는 모두 정리가 되어서 입금되지 않은 잔액은 남아있지 않았다고 김미경 감사가 보충 설명을 하다.

1) 재정 관리

재정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는 예산에 근거한 지출이 집행되도록 하며 예산 작성 시 세부 항목을 지정한 후 지출 관리하도록 하고 예외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근거 자료 재정 지출 서류 항목을 만들어 지출하도록 권고. 경비 지출 청구서와 영수증 첨부에 대한 여러 권고 사항이 있었고, **tax report** 는 분기별로 보고하길 권장, **Pay Pal account** 는 정리 권고, 낙스 자산관리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기록 보존하기를 권고함.

2) 행정 관리

행정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은 홈페이지에 낙스 조직도에 이사회 위원회와 집행부 사업위원회와 구분하여 시정하는 것과 역대 이사회 임원 명단 중 13 대 총무이사 황희연 수정 권고, **Authorize.net**, **paypal** 담당자 이름 주소 수정 권고, **Gmail account**, **@naks.org** 관리 여부 확인 권고, 회의록에 사업 운영 결과 및 사업 효과 평가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길 권고, 사업 지속성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사업의 상과 참석 및 필요성, 낙스가 지향하는 목표와의 부합 여부, 예산 확충 방안 등 객관적 사업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고함.

2022 – 2023 회계 연도 전반기 중간 감사 보고.....감사 김미경

1) 재정 운영

Monthly Bank Statement 와 **Vanguard statement** 는 월별/분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Authorize.net statement** 잘 정리되었으나 대표자 이름이 현 총회장으로 수정 권고, **2022.9.2~23.6.30** 까지의 수입 지출 상세항목별 예산/결산서 미제출로 재정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없었다. 권고 사항으로는 수표 발행은 반드시 지출 청구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발행하는 것과 지출 청구서에 사업명과 상세내역을 분리하여 정확히 수정하는 것과 강사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일관된 법에 의하여 지출하도록 권장.

2) 행정

지난 감사 권고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반복되는 불합리함을 경고, 감사 자료 준비가 미비하여 완벽한 자료 제출을 요청, 회의록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자세한 회의 내용 기록을 권장, 홈페이지 관리 권장 및 낙스 홈페이지 **Chronicle** 에 역대 낙스 이사회 임원 13 대 총무이사 황희연/이병용 확인 수정 권장. 3) 이사회 회의록이 날짜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권고사항으로는 공문 발송 양식을 연속성있게 사용하는 것과 이사회 회비 현황 재무 보고를 하도록 권장함.

7 번과 8 번에 대한 모든 감사 보고를 마친 후 질문이 더 없으면 동의 재청을 해 줄 것을 사회자가 요청하였고 이에 이미전 회원의 동의, 김혜성 회원의 재청, 이어진 사회자의 질문에 모두가 “예”하므로 감사 보고가 통과되다.

8. 2021-2022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사회자

사회자가 ppt 에 나온 **2021-2022**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자료를 읽으므로 보고를 함. 지수경 회원이 이사회비 실행률이 왜 **85%**인지 질문을 했고 이에 정광미 전 재무가 결연으로 인해 실행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지수경 회원의 말에 대해 **20** 대 오준석 이사장의 불참으로 전 김선미 총회장이 대신 답을 함. **Out Standing Balance** 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미경감사가 나와서 확인을 해 줌. 기타 질문 사항이 없다면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동의, 재청해 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조영숙 회원의 ‘동의’와 김영자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 이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하기를 사회자가 요청하였고 모두 “예”라고 하므로 통과되다.

9. 2022-2023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중간보고.....김솔
재무 김솔 재무가 **2022-2023**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중간보고를 함. 중간보고는 **2023** 년 **6** 월 **30** 일까지의 재정, 즉 아직 **20** 대 후반기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정기총회 중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2022.-2023**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는 내년 총회에서 한다는 사회자의 설명이 있었다. 그래서 보고 사항인 관계로 동의 재청 순서는 없었다.

10. 2023-2024 년 회계 연도 사업 계획안 심의 및
통과.....사회자 사회자가 **2023-2024** 회계 연도 사업
계획안은 이메일 첨부파일 **4** 번으로 보내드린 내용이다. 최미영 회원의 동의와 선우인호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모두 “예”로 답함으로써 **2023-2024** 회계 연도 사업 계획 안이 통과되다.

11. 2023-2024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및 통과사회자
사회자가 첨부파일 **5** 번에 있는 **2023-2024** 회계 연도(**23. 9. 1 – 24. 8. 30**)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2023-2024** 예산안을 그대로 받기로 호선희 회원의 동의, 윤혜성 회원의 재청이 있었으며 모두 “예” 로 답함으로써 통과되다.

12. 이사회
보고.....이사장
박종권 이사장이 아래의 순서대로 이사회 보고를 함.

1) 이사회 구성(총원 50 명 / 현재 45 명)

- 당연직 이사 – 총 25 명
- 집행부 10 명(총회장 1 명, 부회장 3 명, 사무총장 1 명, 재무 1 명, 간사 4 명)
- 지역협의회장 – 14 명
- 직전 이사장 1 명, 직전 총회장(지역협의회장 겸임)
- 선출직 이사 – 당연직과 동수(정원 25 명 / 현재 20 명)

2) 이사장단

이사장 박종권, 부이사장 최미영, 총무이사 김혜성

3) 선출 이사(총 20 명 / 공석 5 명)

- 2020 – 23 년 임기: 박종권, 이기훈, 이동렬, 김건홍, 최기선, 이미전(이상 6 명)
- 2021 – 24 년 임기: 김혜성, 김미경, 이명희, 임지현(이상 4 명)
- 2022 – 25 년 임기: 이현경, 유기선, 김경희, 김정숙, 이병용, 강혜정, 주지영, 윤상구, 곽은아, 최미영(이상 10 명)
- 감사: 김미경 / 임시 감사: 유미순

4) 선출이사 인준(임기: 2023.9.1 ~ 2026.8.31)

이현경(뉴잉글랜드협의회) / 강혜정(동남부협의회) / 유기선(동북부협의회) / 김경희(동중부협의회)
김정숙(동중부협의회) / 윤상구(서북미협의회) / 주지영(플로리다협의회) / 이병용(워싱턴협의회)
최미영(북가주협의회) / 곽은아(북가주협의회) / 강용진(미시간협의회) / 박은주(남서부협의회)
윤현주(중서부협의회) / 정용만(서북미협의회) / 김선화(워싱턴협의회) / 이기훈(워싱턴협의회)
임나연(콜로라도협의회)

5) 상임위원회 구성

- 지명위원회: 이현경, 박종권, 김경희, 최기선, 강성방, 길병도, 김종욱, 송지은
- 장기계획 위원회: 김선미, 추성희, 오준석, 강혜정, 윤상구, 길병도, 김광희
- 회칙 위원회: 최미영, 이기훈, 이병용, 권미경, 남일, 윤혜성, 유미순, 강성방, 이상희
- 회원자격심사 위원회: 손애자, 곽은아, 유기선, 이현경, 김선미, 김선화, 박성희
- 마이클양기금(**NAKS** 발전기금)위원회: 박종권, 추성희, 김솔, 김미경, 김정숙, 김혜성, 임지현, 이상희, 한지은, 홍태명(전문위원)
- 학술대회 지원 위원회: 황현주, 이미전, 남일, 송지은, 조수진, 최수진, 황정숙, 한현정
- 재무위원 위원회: 선우인호, 김솔, 김건홍, 최기선, 주지영, 이명희, 정광미

6) 향후 이사회 주요 일정

2023 년

- 9 월 이사회(위원회 편성)
- 11 월 정기감사

2024 년

- 4 월 차기 총회장 부회장 등 선출직 후보자 신청 공지
- 6 월 이사회(선출직 후보자 결정)
- 7 월 이사회(학술대회 및 총회: 총회장 선거, 부회장 인준)

7) 회칙 위원회 보고.....최미영
최미영 부이사장이 나와서 회칙 수정에 대해 발표함. 맞춤법 및 오타(명칭)를 수정했고, 헌장 내용 수정 관련 항목(헌장 제 16 조 1 항 3 호 이사장 선출) 수정, 명칭 수정 관련 항목(헌장에 제시된 임원회를 집행부로)

수정했음을 발표. 회칙 수정에 대해 정광미 회원의 동의와 호선희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 이어서 사회자의 질문에 모두가 “예”라고 답하므로 회칙 위원회 보고가 통과됨.

13. 제 **43**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발표.....사회자
사회자가 차기 학술대회 개최지를 발표하고 동중부협의회에서 준비한 소개 영상을 상영함 - 제 **42**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일시: 2024 년 7 월 18 일(목) ~ 7 월 20 일(토)
- 장소: Philadelphia Marriott Downtown

14. 폐회사회자
사회자가 이로써 제 **41**회 정기총회 안건을 모두 소화하였으므로 오늘 총회의 폐회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했고 이에 선우인호 회원의 동의, 이은애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이어서 사회자의 폐회를 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회원 모두 “예”로 답하였다. 추성희 총회장이 오후 6 시 20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